민선 8기 나주시 축산정책, 혁신 성과로 새 도약

맞춤형 브랜드부터 방역까지 축산 전 분야 구조 변화
윤병태 시장 "실질적 변화…지속가능 축산 선도도시"

나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축산 분야 전반에 걸쳐 체계적 혁신으로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축산업을 단순한 생산 중심의 산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발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들이 성과로 현실화하며 나주 축산의 미래가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나주들애찬한우' 브랜드를 육성하며, 그동안 브랜드 부재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한우 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는 나주가 전남 최대 한우 사육 지역임에도 자체 브랜드가 없어 농가가 제값을 받지 못하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다.

나주시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한우 명품화 기초 확립, 특성화 사료 개발, 육가공 유통 체계 구축, 마케팅 고도화까지 이어지는 4개년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8월 '나주들애찬한우 사골곰탕'이 뉴질랜드에 처음 수출되며 브랜드의 글로벌 가능성도 입증했다. 이는 브랜드 부재라는 최대 약점을 해소하고 안정적 해외 판로를 개척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또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등 공공기관 연계 판촉 행사와 2025 나주영산강축제 농업페스타에서 시식 및 판매 행사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을 병행해 브랜드 경험을 확산하고 있다.

나주몰, 남도장터, 축협, 중앙농협몰 등 판매처 확대에 나서고 쿠팡, 카카오톡, 옥션, G마켓,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함께 추진하며 유통망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산강 일원을 반려 문화, 산업, 관광이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영산강 반려동물 클러스터'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반려 문화 기반 정착을 위해 2024년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하고 금천면 원곡리에 반려견 플레이그라운드를 조성해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올해 공공건축 심의와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12월 실시설계 공모를 거쳐 착공만 남겨두고 있다.

나주시는 향후 펫푸드와 반려용품 산업 육성, 2026년 나주 방문의 해와 연계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콘텐츠 확대 등 산업과 관광 분야까지 연계해 반려 친화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악취 개선 공모 사업에서 전남 최초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환경 분야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했다.

2026년 사업에는 총 16억4000만원이 투입되며 분뇨처리 방식 개선, 악취 저감 시설 확충, 경축 순환 체계 강화 등이 추진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선 8기 나주 축산정책은 농가가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브랜드와 산업 육성, 방역과 환경 관리까지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지속 가능한 축산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

윤병태 나주시장

금천면에 조성한 반려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지난 10월 4일 '멍멍파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지난 9월 9일 나주시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나주들애찬한우' 선포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영암 겨울 관광 즐기고 혜택은 더블로

군, 내달 '설산가산 이벤트'…최대 20만원 혜택

영암군은 연말 지역 관광 수요 견인을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영암에서 즐기는 설산가산 이벤트'로 '영암여행 1+1' 혜택을 늘린다.

이번 설산가산 이벤트는 눈이 오면 더 아름다운 월출산의 '설경'을 포함해 영암의 겨울을 즐기러 온 관광객에게 혜택을 '가산'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암여행 1+1은 영암 여행 관광객이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하면 방문 회차별로 모바일 지역화폐 월출페이 또는 온라인 영암몰 포인트를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제도다. 영암군은 1인 여행객에게 1회 2만5000원, 2회 3만5000원, 3회 5만원을, 2인 이상 팀에게는 최대 24만원까지 지급해 왔다.

이번 더블 이벤트에서는 영암여행 1+1의 소비 인정금액을 2배로 올리고, 회차별 인센티브도 높여준다.

1인 여행객에게 10만원, 2인 이상 팀에게 20만원까지 소비 금액을 인정하고, 1회차 50%, 2회차 70%, 3회차 100%까지 인센티브를 확대해 한 번에 최대 20만원까지 되돌려준다.

이미 3회차까지 인센티브를 받은 관광객에게는 '12월 특별회차' 혜택도 진행해 12월 중 다시 영암을 방문하면 1회차와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도 추가 제공한다.

아울러 12월 지급되는 월출페이의 유효기간을 오는 26일에서 내년 1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해 준다.

관광객은 영암여행 1+1 전용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참여를 사전 신청하고, 숙박·식사·체험 등 영암 소비 내역을 인증하면 월출페이 또는 영암몰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이번 특별 이벤트로 관광과 소비를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눈 내린 월출산국립공원과 영산강, 구림마을 한옥 등 겨울 풍경이 아름다운 영암에서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따뜻한 여행을 즐기고, 영암여행 1+1의 혜택도 두배로 누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세계적 팝페라테너 임형주, 광양 찾는다

시, 12일 '송년 콘서트' 개최…감동의 밤 선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팝페라테너 임형주 교수가 오는 12일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2025 송년 콘서트'에서 광양시민에게 특별한 연말의 감동을 선사한다.

임 교수는 카네기홀, 링컨센터 등 세계 주요 공연장에서 활약해 온 글로벌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다.

그는 2024년 역대 최연소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청소년 보호 및 문화육성 기여 공로), 2023년 영국 왕립예술학회(RSA) 종신 석학회원 선정, 2014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친선대사 위촉 등 예술성과 사회적 공헌은 국내외에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이번 송년 콘서트는 총 110분간 진행되며, 코리안 내셔널 필 앙상블과의 협연 무대로 꾸며진다.

임 교수는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 △Una Furtiva Lagrima(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그리운 금강산, 오솔레미오, 7080 디스코 메들리, Tonight(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등 클래식·팝·가곡·크로스오버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김명덕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세계적인 명성과 실력을 갖춘 임형주 팝페라테너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음악의 기억을 드리고자 한다"며 "2025년을 돌아보고 2026년을 힘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위로와 희망을 담아 무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연 관람료는 전 좌석 5000원이며, 예매는 5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 또는 광양문화예술회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또는 문화예술과 문예회관팀(061-797-3602, 2529)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함평, 청년농 육성·역량 강화
제주 견학…농특산물 홍보도

함평군이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지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역 청년농업인 30여 명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견학에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 청년분과 회원과 함평군 4-H연합회 회원들이 참여했다.

청년농업인들은 △축산 악취저감 전문기술 교육 및 현장 실습 △청년문화·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 회복 및 교류 강화 △제주 문화탐방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함께 교류하고 선진 사례를 배우며 농업 역량을 강화에 힘썼다.

또 다양한 교육을 통해 습득한 신기술과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지역 농업 발전 접목 방안을 논의하고, 청년 농업인 세대의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다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고흥, 사례 중심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호응'

46개 아동 맞춤 프로그램
아동 성장·발달 지원 사업

고흥군이 2025년을 튼튼한 성장과 포근한 돌봄으로 채운 한 해로 평가했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례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158가구 24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해 가족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신체(웰빙 영양간식, 기초체력 건강 클리닉), 정서(심리치료, 해피바이러스), 학습(방과 후 공부방, 영아성장 프로젝트) 분야 46개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고흥군은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례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세이프티 하우스 주택), 청소년 그루터기재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솔라 유한회사 지정기탁(10명, 200만원), 세이브더칠드런 추석 생필품 지원(19가구, 190만원), 롯데리아 외식상품권 지원(60가구, 138만원) 등 민간 후원이 꾸준히 이어졌다.

아울러 학습지·안경 지원, 이미용·목욕 서비스, 건강검진·학원 연계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통해 취약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아동 돌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부모 교육과 가족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자녀 성장 주기 맞춤형 성교육을 주제로 한 부모 교육을 실시했으며,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 증진을 위한 가족 힐링캠프와 역사 문화 체험 사(史)뿐사(史)뿐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을 줬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영광, 마을만들기사업 대상지 4곳 선정

영광군은 염산 장동마을, 홍농 가마미마을, 대마 하화·칠율마을, 군서 보라마을 등 4개 마을을 '2026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2020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상향식 사업이다.

군은 총 7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포럼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실사와 발표평가 등을 진행했고, 총 4곳을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마을에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마을당 최대 5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마을에는 노후 담장 정비, 주차장 조성 등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